

여수~광양 부생가스 육상배관 2018년 설치

한국산업단지공단-여수산단 업체 업무 협약 체결 길이 10km 폭 4m...해저터널 완공시점 맞춰 건설 연간 생산비 1000억원·물류비 200억원 절감 효과

현재 추진중인 여수~광양 해저터널과 연계해 부생(副生)가스를 여수국가산단내 각 공장으로부터 이송하는 육상배관 건설을 위한 구조물 설치 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 EIP(생태산업단지) 총괄사업단'은 지난 18일 (주)한양, 포스코 그린가스텍㈜, ㈜용호기계기술 등과 '여수산단내 원료이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광양~여수간 해저터널공사의 종점인 여수산단 일반부두 인근에 건설 예정인 탱크터미널에서 부생가스 수요처인 여수산단내 각 공장까지 1단계로 약 10km 구간에 폭 4m의 공용 파이프랙을 건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파이프랙은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육상 철 구조물이다.

이들은 여수산단~광양제철간 부생가스 교환을 위한 해저터널이 완공되는 2018년에 맞춰 육상 배관망을 차질없이 건설하도록 제때에 맞춰 파이프랙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너비 4m 규모의 이 해저터널 안에는 11개의 원료이송 배관망이 설치된다.

부생(副生)가스
제철소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수소 등 가스.

이 배관망을 통해 광양제철에서 발생하는 수소, 일산화탄소, 고농도해수를 여수산단으로,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염산, 염소, 질산 등을 광양제철로 각각 공급하게 된다.

이들 부생가스 물질 교환 외에도, 여수산단 내 설치될 공용배관망을 통해 여수산단 내 기업 간에 자원순환도 이뤄지게 된다. 현재 여수산단 내 공용 배관망을 통한 자원순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약 1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배관망을 이용해 나프타, BTX, 에틸렌 등 원료를 이송할 계획이다.

EIP사업단 관계자는 "광양제철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여수산단으로 공급해 연간 1000억원의 생산비 절감과 20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밖에 연간 18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여수산단 업체는 최근 여수~광양 부생가스 육상배관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을 체결했다.

여주시, 내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 총력전

3만명 참여 농업인 대표축제 내달 1일 현장실사 준비 분주

여수시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를 앞두고 현장실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내년 8월에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사)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처음 개최한 한국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는 국내 농업을 이

끌고 있는 전국 농업 경영인들과 관계자 등 3만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농업인들의 대표 한마당 축제다. 2년마다 열리는 개최식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여야 대표 정치인들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할 만큼 그 위상 또한 높다.

여수시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위기에 빠진 국내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후계 농업인들의 화합·비전 공유 등 미래 한국 농업이 나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3만 명이 달하는 전국 농업인

들의 열띤 참여와 호응을 통해 '선진 농업 도시 여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회 유치를 위한 여수시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사)한농연 중앙연합회와 전남연합회 임원들을 연이어 면담하고 일제감치 유치를 분명히 했다. 지난 3월 전국대회 유치 1차 신청 이후 이어진 후보지 지역 경쟁에서 여수시는 인근 광양시를 누르고 전남 후보지로 당당하게 선정됐다.

5월 2차 신청을 마친 시는 유치예치금

확보와 홍보 리플렛 제작, 한농연 임원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전국대회 유치홍보활동 전개 등 대회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종 개최지는 오는 7월 1일 후보지인 여수와 구미지역에 대한 심사단 현장 실사 후 결정된다.

여수지역 개최가 확정될 경우 오는 2016년 8월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지게 된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위성복 소장은 "전남 농업인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회 유치가 온 힘을 쏟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산단 혁신지원센터 주상동 삼동지구 건립 추진

여수시가 주상동 삼동지구에 혁신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추진 계획은 지난해 말 여수 국가산단이 혁신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첫 사업으로,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15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사업지

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여수산단을 비롯해 창원산단, 대불산단, 부평·주안산단 등 4곳에 대해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심사 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여수시는 건립 사업이 확정되면 올해 9월부터 3년간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40억

원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삼동지구 내에 1만9000㎡에 6~8층 규모의 혁신지원센터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중소기업협회, 여수산단 홍보관,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석유화학 관련 관계기관과 분원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하

면 평가위원회에서 8월 중순 선정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혁신 지원센터를 설립하면 여수산단 근로자의 편의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해 여수산단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여수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라선 고속철 등 4개 현안 정부에 공동 건의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서를 방문해 3개 시(市)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결의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공동추진 지역 현안사업은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이순신 대교 국가 관리 ▲여수공항 활성화 위한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동서통합시대 조성사업 등 모두 4건이다. 앞서 지난 4월 초 행정협의회 제21차 정기회의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공동추진을 결의했고, 5월 중순 이를 공동 건의문으로 만들

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우선 경부선과 호남선과 비교해 열악한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사업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어려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순신 대교를 포함한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에 대해 '산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국도 승격 등 국가관리를 건의했다.

이 밖에 동서통합과 국가발전의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핵심 공약인 동서통합시대 조성사업의 조속한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올해 한려문학상에 '공무원 시인' 박해미씨

여수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지역의 뜻깊은 문학상을 수상했다.

박해미 시인(본명 박정덕·사진 가운데)이 올해의 '한려문학상'을 수상했다.

한려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인태)는 올해로 23년을 맞은 '한려문학상' 수상자로 박해미 시인(본명 박정덕)을 선정하고 지난 18일 여수 문수동 파티랜드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여수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24년간 근무하고 있는 박 시인은 예술 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해 여수문인협회와 한국시인협회, 갈무리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3년 한국예총 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꽃등을 밝히다'를 펴는 등 오랜 기간 문학 활동에 정진해 왔다.



박해미 시인은 "한려문학상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문학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창작활동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려문학상은 지난 1993년 여수 성 바오로외교 박인태 원장 등의 후원으로 여수지역 문학인들의 창작 및 작품활동을 고무시키고 향토 문학의 발전과 문학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한영대, 여수산단 특성화 대학으로 본격 육성

내년 화공환경산업과 신설

여수 한영대학이 올해 석유화학공정과 신설한데 이어 내년에 화공환경산업안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임정섭 한영대 총장이 지난 17일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상의와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내년도에 화공환경산업안전과를 신설, 여수산단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시켜 가겠다는 대학 발전계획을 설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수국가산단 특성과 계열의 석유화학공정과 화공플랜트산업과를 개설해 운영 중인 한영대가 화공환경산업안전과를 신설하면 여수산단 취업을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앞서 올해 신설한 한영대 석유화학공정과 입학 경쟁률이 17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상의와 한영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대학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은 "여수 국가산단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대학인 한영대에 석유화학 공정과 화공플랜트 과정 신설로 산단 맞춤형 기술인력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 3건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건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최소 월납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광고문 게재(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리지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